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1~3월 외자이용액 10.8% 감소한 2,692억 위안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3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한 2,692억 위안, 신규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4.3% 증가한 1만 2,603개 사, 3월 당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외자이용액은 각각 715억 위안, 1,933억 위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첨단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786억 위안이며,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우주항공설비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각각 100.5%, 63.8%, 42.5%, 12.4% 증가

* 첨단제조업 : 의약품, 우주항공설비,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의료기기, 감광재료 제조업 등

- 지역별 아세안, EU의 對중국 투자는 각각 56.2%, 11.7% 증가, 국가별 스위스, 영국, 일본,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각각 76.8%, 60.5%, 29.1%, 12.9% 증가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504/19/content_30068813.html

2 1분기 일반 공공예산 수입 1.1% 감소, 지출 4.2% 증가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 감소한 6조 189억 위안,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4.2% 증가한 7조 2,815억 위안

- 주요 조세 수입 항목별로는 △증치세는 2.1% 증가한 2조 467억 위안, △기업소득세는 6.8% 감소한 1조 980억 위안, △수출환급세는 14.0% 증가한 7,549억 위안, △소비세는 2.2% 증가한 5,222억 위안, △개인소득세는 7.1% 증가한 4,540억 위안, △수입 화물 증치세·소비세는 8.7% 감소한 4,064억 위안, 관세는 14.8% 감소한 483억 위안

- 제조업 분야는 장비 제조업 조세 수입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 이 중 철도·선박·항공 우주설비 제조업, 컴퓨터·통신설비 제조업 조세 수입이 각각 32.4%, 8.5% 증가. 서비스업 분야는 문화·스포츠·오락 산업 조세 수입이 13.4% 증가

- 한편 신질적 생산력 육성 가속화 및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라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조세 수입은 13.6% 증가
- 주요 예산 지출 항목에서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은 7.9% 증가한 1조 3,570억 위안, △교육 지출은 7.8% 증가한 1조 1,249억 위안, △위생·건강 지출은 2.2% 증가한 5,848억 위안, △지역단지 건설 지출은 4.1% 감소한 5,384억 위안, △농림수산업 지출은 5.8% 감소한 4,882억 위안 등임

자료원 : 중국재정부, 경제참고보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504/t20250418_3962244.htm

<http://jjckb.xinhuanet.com/20250421/5fd3adf436344dd4bd76f3e74a163120/c.html>

3 위안화, 국제화 수준 안정적 제고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위안화는 세계 4대 결제 통화이자 3대 무역금융 통화로 나타남
 - * 글로벌 결제 통화 : 국경 간 자금 이동(송금, 지급 등) 일반 거래에서 사용하는 통화
 - * 무역금융 통화 : L/C(신용장), 무역 신용공여 등 무역금융 상품에서 사용하는 통화
- 2024년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64조 위안, 외국 금융기관·기업이 중국내 발행한 판다채권(Panda Bond) 규모는 32.0% 증가한 2,000억 위안,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액은 150.0% 급증. 중국은 세계 2위 채권시장으로 외국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자산운용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 위안화 채권을 구매
- 현재 위안화는 80여 개 외국 중앙은행 혹은 금융당국의 외환보유고에 편입, 중국 홍콩의 위안화 예금 및 대출 잔액은 각각 1조 위안, 7,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전문가들은 낮은 환율 변동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글로벌 안전자산 역할이 강화 되었다고 평가, 환율은 시장수요에 따라 점차 조정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중국상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829357611842389218&wfr=spider&for=pc>

4 올해 캔톤페어 기간 남미 지역 바이어 증가

- 제137회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1기 전시회(4/15~19)에는 216개 국가(지역)의 바이어 약 14.9만 명이 참가,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 또한 전시회 기간 금융, 산업망 협력, 무역 디지털화 등을 주제로 234건의 부대행사 및 포럼을 개최

- 전시회 참가기업은 1,100개 사, 전시품은 32만 건으로 서비스용 로봇, 농업용 드론, 고층 건물 청소용 로봇 등의 첨단 상품이 주목받음
- 전시회 참가사는 유럽·미국·중동·아프리카·인도·러시아 등지의 바이어와 교류, 특히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남미 국가의 바이어가 뚜렷이 증가
- 광저우지페이(极飞)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동남아·중동·남미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고, 광둥링두(凌度)스마트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자사의 고층건물 외벽 및 태양광 패널 청소로봇을 21개 국가에 수출 중이라고 소개함
- 금번 칸톤페어는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3기로 나누어 개최, ‘첨단제조’, ‘프리미엄 리빙’, ‘라이프스타일 소비재’를 주제로 55개 전시구역 설치 및 운영

〈칸톤페어 사진 정보〉



자료원 : 경제참고보, 계면신문, 양광망

<http://www.jjckb.cn/20250421/32977413632d46f8bc43b02c59c304b3/c.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30066311024799591&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829520069421841309&wfr=spider&for=pc>

5 제5회 소비재박람회, 협력 의향서 계약액 920억 위안 달해

- 제5회 ‘중국 국제 소비재박람회(4/13~18)’가 4월 18일 하이난성에서 폐막, 이번 박람회에는 71개 국가(지역)의 1,767개 기업, 4,209개 소비재 브랜드가 참여, 참가 바이어는 6만 명에 달함. 박람회 기간 매칭교류회를 통해 52건의 협력 의향을 달성, 의향서 계약액은 920억 위안으로 집계
- 올해 슬로바키아·싱가포르·브라질 등 국가가 최초 참가, 주빈국은 영국으로 전시관 면적은 1,300제곱미터, 53개 브랜드를 선보임
- 신소비 과학기술 전시구역 면적은 전년 대비 30% 확대, 최초로 인공지능(AI), 저공경제 등 분야 전시구역 설치. 인공지능 전시구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골격 장비 등 혁신 제품을

선보였고, 저공경제 전시구역에는 선도기업(12개 사)이 드론 및 비행 자동차 등을 전시하고 16억 위안 규모의 장비제조 계약을 체결함

- 박람회 기간 체결된 대형 프로젝트는 △태국 CP그룹의 약식동원(약용 가치를 보유한 식품) 프로젝트(43억 위안 규모), △루이싱(Luckin) 커피의 하이난성 커피원두 로스팅기지 건설 프로젝트, △싱가포르-스위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체인 건설 하이난 프로젝트 등임

〈소비재 박람회 사진 정보〉



자료원 : 중국상보, 신화사신매체

<https://www.zgswcn.com/news.html?aid=263859>

<https://baijiahao.baidu.com/s?id=1829459476179155395&wfr=spider&for=pc>

6 中 쇼핑물, ‘펫 프렌들리’ 전략으로 소비자 유치

- 최근 중국 내 반려동물 수는 1.2억 마리를 돌파, 반려동물경제 시장규모가 3,000억 위안에 달하자 상업시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소형견 유모차 대여, 음수대 설치 등 펫 프렌들리 전략을 실시
- 허난성 정저우시의 산산(杉杉) 아울렛은 반려동물 파티, 장난감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주 이벤트를 개최, 쓰촨성 청두시의 JOY CITY(大悦城) 쇼핑몰은 그간 50회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를 끌었음
- 청두시 빈강(滨港)상업중심은 2024년 3월부터 펫 프렌들리 식당·매장·오락실 40여 개를 오픈, 상하이시 AI PLAZA(西岸凤巢)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놀이기구·음수대 등을 설치, 룽후진후이텐제(龙湖金汇天街)는 소형견 출입을 허용하고 유모차 렌트 서비스를 제공
-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업계는 펫 프렌들리 전략이 고객 체류시간 증대, 재방문을 제고,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중국상보

<https://www.zgswcn.com/news.html?aid=262573>